

통계로 살펴보는 100세시대 트렌드

스마트한 소비지출을 위한 3강 5칙

연구위원 김진웅, 보험계리사
02) 768-7712, ruby7071@nhqv.com

Summary

- 도시가구는 월 평균 347만원을 지출, 도시외 가구(266만원)보다 약 30% 더 많은 금액 지출
- ‘교통’이 주요 지출항목 중 하나로 특히 도시근로자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15.1%)을 차지
- 소비지출의 정점은 40대 가구로 월평균 소비지출은 31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구간이 증가할수록 지출금액은 증가하나 지출비율이 떨어지는 한계효용의 법칙 적용
-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교통비 비중도 빠르게 증가, 차량구입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 원인
- 우리나라 전체 소비지수는 과소비 수준(0.7)에 가까운 0.69로 적절한 지출통제가 필요
- 소비지출 3강 : 1) 예산수립 후 계획지출, 2) 필요지출 여부 심사숙고, 3) 목표달성 시 보상
- 소비지출 5칙 : 1) 2~30대 주거비 효율개선, 2) 3~40대 차량구입 눈높이 낮추기, 3) 4~50대 자녀교육비 통제, 4) 통신비 적정수준 점검, 5) 비소비지출(세금) 감소(절세금융상품 활용)

뱀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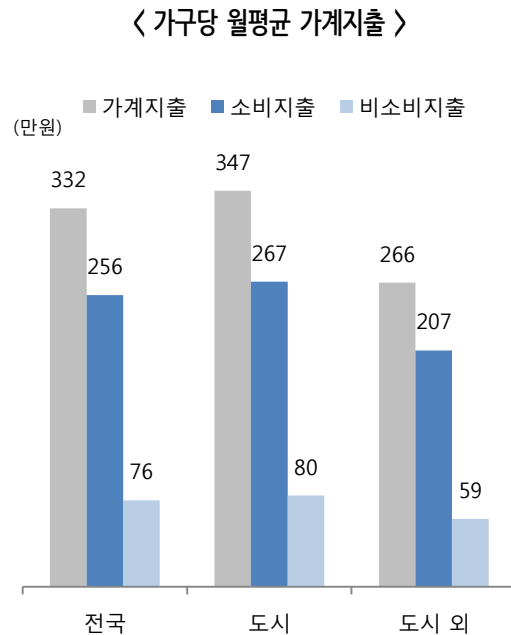
- ‘뱀새’,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로 몸집이 13cm 밖에 안 되는 다리가 매우 짧은 새인 반면 ‘황새’의 몸집은 1미터가 넘고 몸집에 맞게 다리도 길다람
- 다리가 긴 황새를 다리 짧은 뱀새가 따라 잡으려는 것은 가랑이가 찢어져도 어려움. 누구나 능력에 맞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뱀새처럼 가랑이가 찢어지는 낭패를 보게 됨
-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소득을 무시하고 남들을 따라 소비하다가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 따라서 자기 소득수준이나 재정형편에 맞는 소비지출은 자산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최근 가계 지출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지출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함

〈 뱀새와 황새 〉



30% 더 비싼 도시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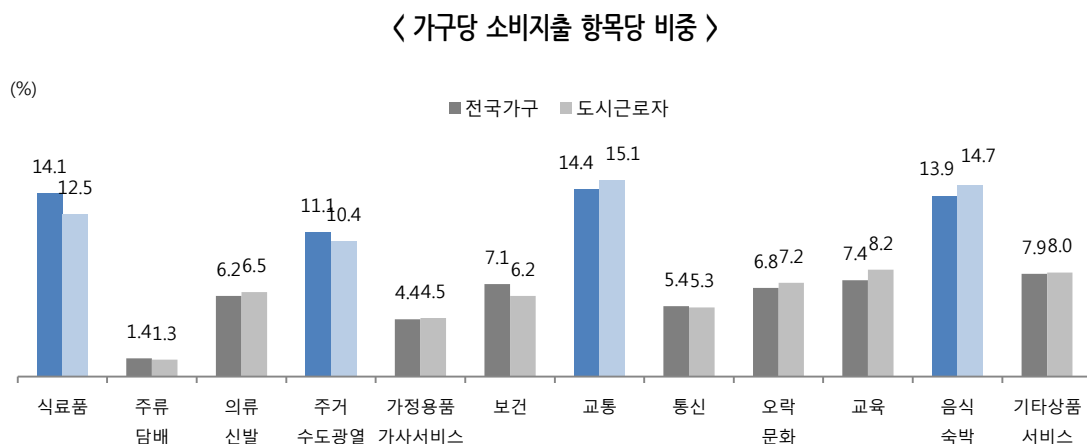
- 2017년 전국기준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31만 6천원으로 이중 소비지출이 77%(255만 7천원)를 차지하고, 비소비지출²은 23%(75만 9천원)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도시가구는 월평균 347만 1천원 지출, 월 266만 4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도시 외 가구보다 30%(80만 7천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지출
- 도시가구는 전체 가계지출에서 소비지출이 77%, 비소비지출이 23%를 차지하고, 도시외 가구는 소비지출 77.7%, 비소비지출 22.3%를 차지
- 도시가구와 도시외가구 가계지출이 금액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비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자료 : 2017가계동향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출은 '교통'

- 지출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교통(14.4%), 식료품(14.1%), 음식·숙박(13.9%), 주거·수도·광열(11.1%) 순으로 나타남.
- 생활의 3가지 기본요소로 보통 의식주를 꼽아왔으나, 이동이 빈번한 현대 생활에서는 '교통'이 주요 지출항목 중 하나로 특히 도시근로자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15.1%)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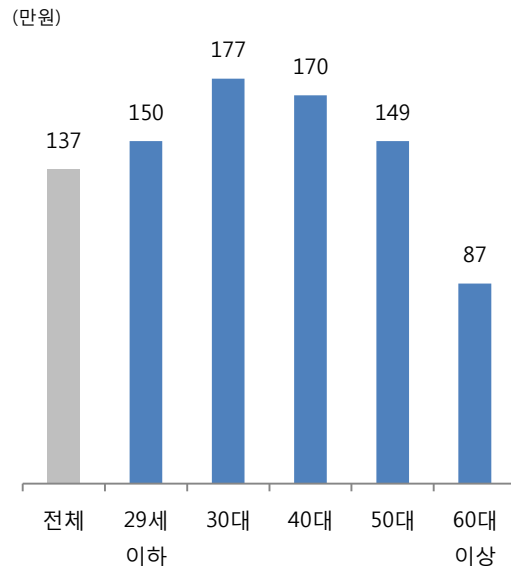
자료 : 2017가계동향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² 비소비지출 : 생활비(소비지출) 이외 지출. 세금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 기부금 등의 비용 항목을 합한 금액

1인 가구, 30대가 가장 많이 소비

- 최근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30대가 월 176만 8천원으로 가장 많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의 주요 지출항목은 음식·숙박(21.1%), 교통(16.6%), 주거·수도·광열(15.9%) 순
- 40대 1인 가구가 월 169만 6천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20대와 50대가 월 150만원 정도 비슷한 소비지출 규모를 보임
-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월 87만 4천원으로 가장 적게 소비, 30대 이후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현상 나타남
- 60대 이상 주요 지출은 식료품(25.0%), 주거·수도·광열(21.4%), 보건(12.6%) 순이며, 30대 소비와 비교했을 때 활동성 저하에 따른 지출 감소 현상이 있음

〈연령대별 1인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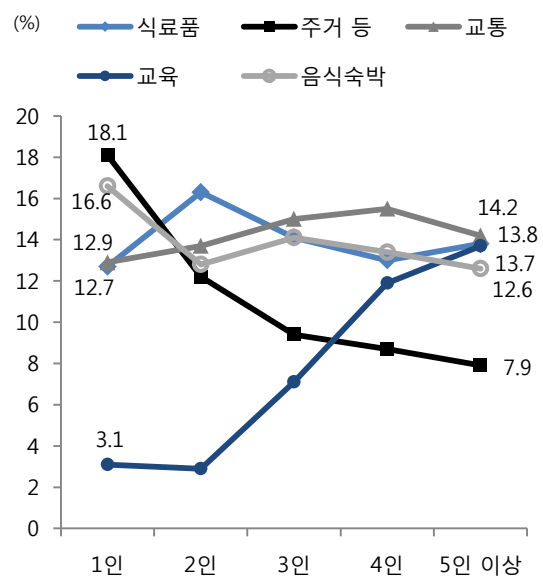


자료 : 2017가계동향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가구원수에 따른 소비지출 비중의 변화

- 식료품·비주류음료는 2인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 가구원수가 늘어감에 따라 점차 감소
- 고정비 성격이 강한 주거·수도·광열 비용은 가구원수가 증가에 따라 빠르게 감소. 특히, 3인 가구부터 비중이 10% 이하로 대폭 감소
- 전체 가구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교통항목은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12.9~15.5%)을 차지
- 교육비의 경우 1~2인 가구에서 3% 안팎의 낮은 비중을 보이나 자녀 등 가구원수 증가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 5인 이상 가구에서는 13.7%에 달함
- 음식·숙박의 경우 10% 이상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특히 1인 가구에서 높은 비중(16.6%)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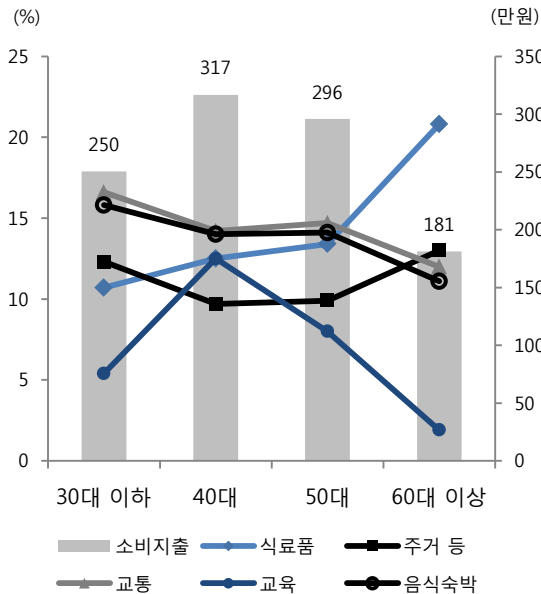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비중변화〉



자료 : 2017가계동향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비지출의 정점, 40대

〈가구주 연령대별 소비지출〉



• 40대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316만 8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50대 가구 월 295만 8천원, 30대 이하 가구가 월 250만 3천원 순. 가구원수의 변화까지 반영된 소비지출의 정점은 40대 가구

• 주요 지출항목을 보면 식료품의 경우 가구주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비중이 함께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주거·수도·광열 지출비중은 가구원수에 따라 40~50대가 비슷하고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비슷하게 나타남

• 교통 및 음식·숙박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양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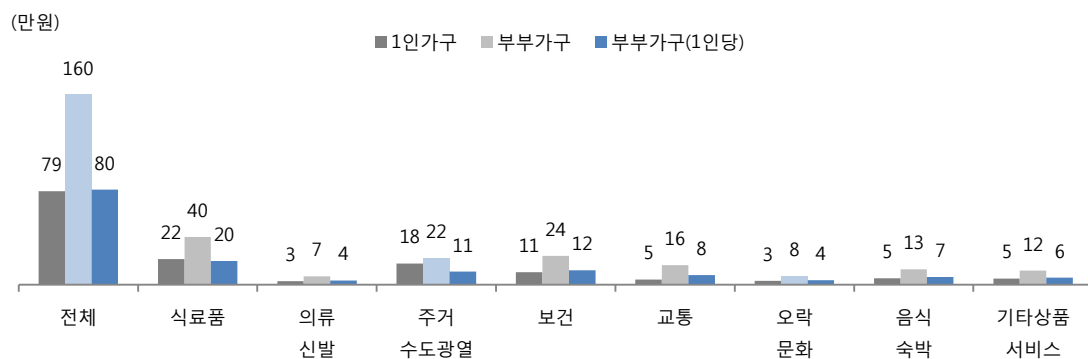
• 자녀성장에 따라 교육비의 비중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자료 : 2017가계동향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혼자보다 둘이 더 쓰는 노인가구

- 노인가구(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가구) 경우 1인 노인가구는 월평균 78만 7천원, 부부 노인가구는 월 159만 7천원 소비지출(1인당 79만 9천원)
- 부부 노인가구 1인당 소비지출 금액이 1인 노인가구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음. 주거비용 등의 경제효과로 부부 1인당 소비지출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인 가구가 됨에 따른 활동성 저하로 소비지출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됨

〈노인가구 주요 소비지출 항목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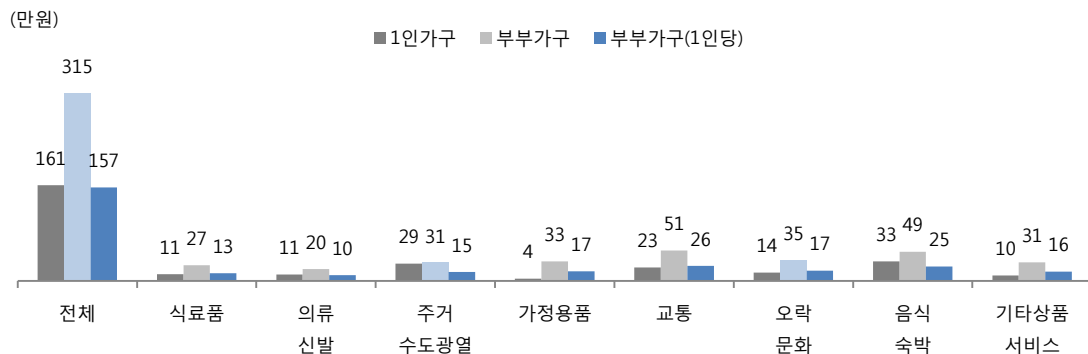


자료 : 2017가계동향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둘보다 혼자 더 쓰는 청년가구

- 청년가구(가구주 연령이 34세 이하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평균 160만 8천원,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월 314만 5천원을 소비지출(1인당 157만 3천원)
- 청년가구는 1인 가구가 자녀 없는 부부가구 1인당 금액보다 좀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음. 주거·수도·광열 등 주거비용이 가장 큰 요인이며, 의류·신발이나 음식·숙박 비용항목에서도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가구 주요 소비지출 항목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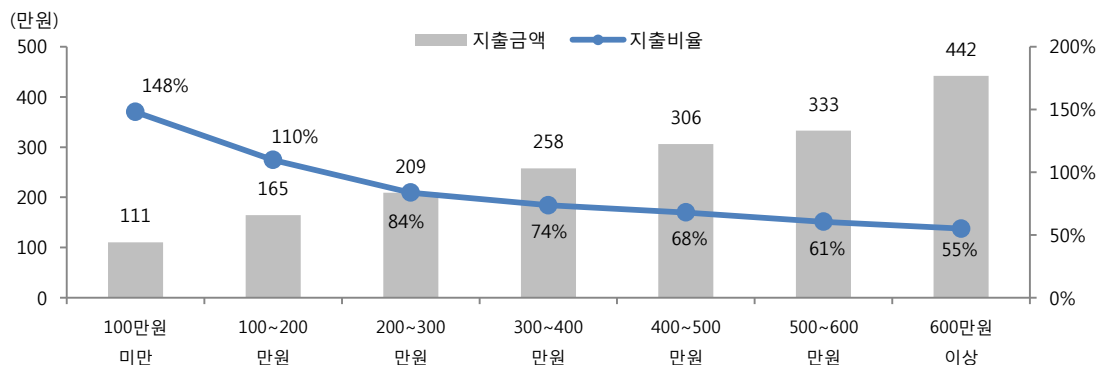


자료 : 2017가계동향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비지출의 한계효용 법칙

- 소득구간별 월평균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가구는 110만 7천원이고, 600만원 이상 가구는 441만 8천원으로 나타남
- 소득구간이 증가할수록 소비지출 금액이 함께 증가하나 소득금액 대비 지출비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지출에 일정 수준 한계효용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

〈소득구간별 가구당 월평균 지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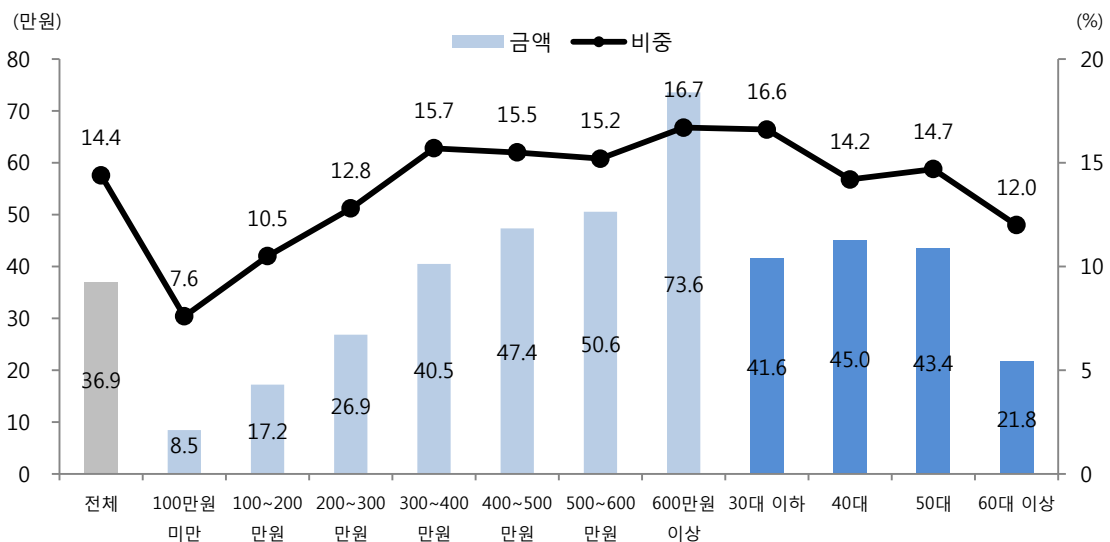
※ 지출비율 산출 시 각 소득구간의 중간값 적용, 단, 100만원 미만 구간 75만원, 600만원 이상 구간 800만원 적용

자료 : 2017가계동향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득이 늘면 차부터 바꾼다

- 소비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 교통비(14.4%)는 월평균 36만 9천원을 지출. 교통비의 비중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자동차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교통비 중에서는 자동차구입(44.5%), 운송기구연료비(28.0%), 기타운송(8.1%) 순으로 나타남
- 소득구간별로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교통비 지출비중(7.6%)이 가장 낮고, 소득 600만원 이상 구간의 지출비중(16.7%)이 가장 높음. 모든 소득구간에 걸쳐 금액과 지출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특히 300~400만원 소득구간부터 교통비의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는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차량구입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교통비 지출비중(12.0%)이 가장 낮고, 30대 이하에서 가장 높게(16.6%) 나타나 교통비는 연령대에 따른 활동성 정도와도 일정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소득구간별 및 가구주 연령대별 교통비 지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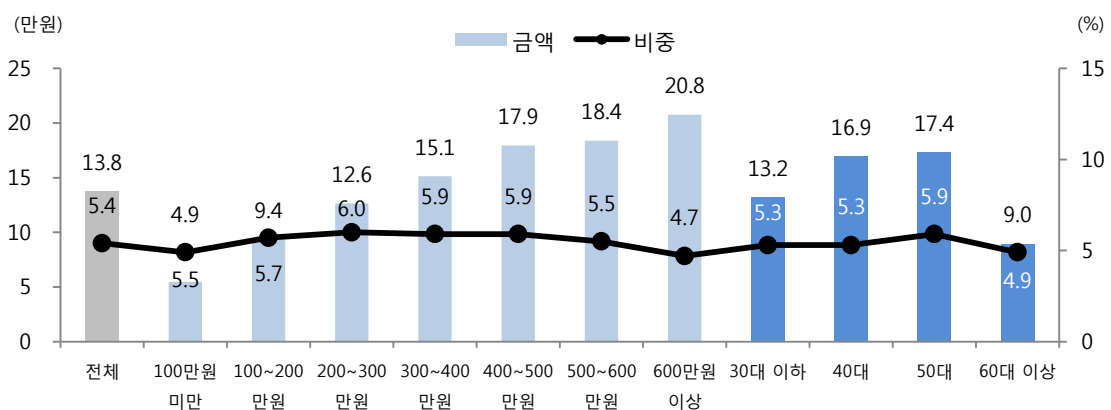
자료 : 2017가계동향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적지 않은 통신비

- 통신비는 과거와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지출항목으로 최근 통계에서 13만 8천원을 지출하며 5.4% 비중을 차지
- 소득구간별로는 소득 600만원 이상 구간의 통신비 지출비중이 가장 낮고, 소득 200~300만원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부담되는 지출항목
-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에서 통신비 지출비중(5.9%)이 가장 높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게(4.9%) 나타나 통신비 역시 연령대에 따른 활동성 정도와 관계 있음

〈 소득구간별 및 가구주 연령대별 통신비 지출 〉



자료 : 2017가계동향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과소비(?)에 빠진 대한민국

-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지수는 0.69로 과소비(0.7)에 가까움.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는 0.62로 적정소비 수준(0.6)에 가깝지만 40대에 들어서 0.77로 소득대비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
- 50대에는 지수가 0.69로 다소 떨어지나 60대 이상이 되면 소득이 감소하면서 지출금액 자체를 줄여도 과소비 구간으로 재진입.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지출통제가 필요

〈 소득구간별 가구당 월평균 지출 금액 〉

(단위:원)

소비지수 평가기준	구분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소비지수 = $\frac{\text{소비지출}}{\text{처분가능소득}}$ 1.0 : 재정파탄 0.7 ↑ : 과소비 0.6 : 적정소비 0.5 : 알뜰소비	월 평균소득	4,480,535	4,663,422	5,087,895	5,302,887	2,961,335
	비소비지출	759,319	613,196	974,776	1,034,324	490,139
	처분가능소득	3,721,216	4,050,226	4,113,119	4,268,563	2,471,196
	소비지출	2,556,823	2,503,232	3,167,551	2,957,919	1,811,071
	소비지수	0.69	0.62	0.77	0.69	0.73

자료 : 2017가계동향조사(통계청),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돈이 모이는 스마트한 지출전략, 3강 5칙

- 자산관리의 출발은 한정된 소득에서 지출을 통제하여 저축과 투자재원 확보에서부터 시작됨. 통계로 살펴 본 소비지출 현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3가지 행동강령과 5가지 원칙을 제안

〈 스마트한 소비지출전략, 3강 5칙 〉

구분		내용
3강	1) 예산수립 후 계획적으로 지출하자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예산수립 후 계획적으로 지출 → 저축 및 투자금액 확보
	2) 꼭 필요한 지출인지 심사숙고하자	필수 생활비용이 아니라면 해당하는 소비지출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를 찾고 구매 → 충동구매 예방
	3) 성과분석 후 목표달성시 보상하자	예산수립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 부족한 경우 보완하고, 목표달성 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
5칙	1) 2~30대 주거비 효율성을 개선하자	주거비 같은 고정비용 지출이 높은 경우 부모나 친구와 동거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감소
	2) 3~40대 차량구입 눈높이를 낮추자	차량구입으로 인한 과도한 교통비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구입시기를 미루거나 눈높이를 낮추어 구입
	3) 4~50대 자녀교육비를 잘 통제하자	40대 이후 무리한 자녀교육비 지출은 노후준비의 방해요소, 적절히 통제하고 일정기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
	4) 중산층, 통신비 적정수준을 점검하자	필요이상의 통신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사용패턴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적정 요금제를 사용
	5) 비소비지출(세금)도 최대한 줄이자	절세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세금 같은 비소비지출도 절약 가능, 저축 또는 투자 시 연금저축 및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절세금융상품을 최우선 활용